

#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 (1학기)

총만국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 ◆차례◆

### 1. 문학 속으로

#### (1) 시와 서정

동짓달 지나긴 밤을\_황진이-----1쪽 (35문제)

#### (2) 소설과 서사

봄.봄\_김유정-----11쪽 (47문제)

#### (3) 수필과 교술

이옥설\_이규보-----34쪽 (39문제)

#### (4) 시나리오와 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_민규동-----46쪽 (46문제)

### 2. 말과 글의 힘

#### (1) 말과 글을 통한 소통

한국의 정체성\_탁석산-----68쪽 (34문제)

#### (2) 논증과 토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82쪽 (40문제)

### 3. 삶에서 책을 찾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_황지우-----100쪽 (20문제)

### 4. 국어의 규범과 변화

(1) 음운 변동-----108쪽 (61문제)

한글 맞춤법-----124쪽 (65문제)

(2) 국어의 역사성-----141쪽 (61문제)

### 5. 나, 너, 우리의 말과 글

#### (1) 점검하며 읽고 쓰기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_이주현-----157쪽 (32문제)

(2) 의사소통의 관습과 다양성-----173쪽 (20문제)

▶정답-----182쪽

▶해설-----185쪽

(버전: 2020.03)

### 1-(1) 동짓달 기나긴 밤을

#### ◆핵심 정리

<b>갈래</b>	, 고시조, 단시조
<b>성격</b>	감상적, 낭만적, 연정적
<b>어조</b>	그리움을 담은 여성적 어조
<b>제재</b>	밤
<b>주제</b>	임에 대한 사랑과 애절한 그리움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li> <li>음성 상징어(의태어)를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적절하게 살림.</li> </ul>

#### • 구성

해당 부분	중심 내용
초장(1행)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중장(2행)	임과 함께 보내는 밤(봄밤, 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 바람
종장(3행)	임이 돌아와 함께할 시간을 간절히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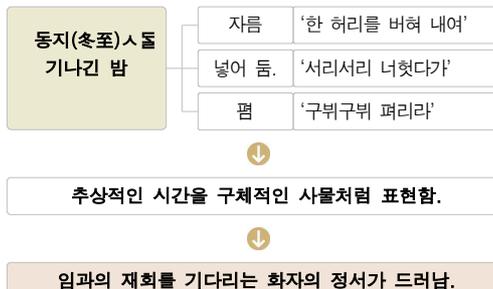
#### • 시상 전개

<b>초장</b>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냄. ▶ 외로움,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b>중장</b>	베어 낸 동짓달 긴 밤의 시간을 춘풍 이불 아래에 넣어 둠. ▶ 임과 함께 보내는 밤을 더 연장하고 싶은 바람
<b>종장</b>	정든 임이 오신 날 밤에, 보관해 두었던 시간을 꺼내어 이어 붙임으로써 임과 오랫동안 함께 지냄. ▶ 임이 돌아와 함께할

#### • '밤'의 양면성과 시적 화자의 정서 대비

동지(冬至)스물 기나긴 밤	어른 님 오신 날 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이 부재하는 현실</li> <li>부정적 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이 돌아와 함께 정을 나누는 때</li> <li>긍정적 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가움</li> <li>외로움, 고독함</li> <li>길게느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따뜻함</li> <li>애정, 사랑</li> <li>짧게 느껴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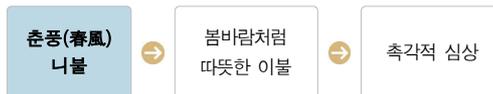
#### •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 • 표현상 특징

<b>화자의 적극적 태도</b>	임과의 이별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동짓달 긴 밤의 '한 허리를 버혀 내어' 다시 임을 만나는 날에 이어 붙이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줌.
<b>유음을 활용한 운율감 형성</b>	'동지스물', '밤을', '허리를', '니불', '서리서리', '어른 님', '오신 날', '퍼리랴' 등에서 유음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운율감이 느껴짐.
<b>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림.</b>	'서리서리', '구뽀구뽀'와 같은 의태어(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노래함.

#### • 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시어



#### • 시조의 특징과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비교

시조의 특징	'동짓달 기나긴 밤을'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총 6구로 구성됨.	[초장의 예] 동지(冬至)스물 / 기나긴 밤을 1구 한 허리를 / 버혀 내어 2구
3·4 / 4·4 조의 음수율	[초장의 예] 동지(冬至)스물 기나긴 밤을 3                    5(4) 한 허리를 버혀 내어 4(3)                4
4 음보율	[초장의 예] 동지(冬至)스물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어

• 대조적 이미지의 활용

<b>동짓돌</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미지</li><li>• 임의 부재로 인해 밤이 더 길게 느껴지는 외로움의 시간임.</li></ul>
------------	--



<b>춘풍</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따뜻함의 이미지</li><li>• 임과의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마음이 반영된 시간임.</li></ul>
-----------	--

<b>서리서리 헛다가</b>	<b>너</b> 임과의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애뜻하고 간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음.
---------------------	---



<b>구뵤구뵤 펴리라</b>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과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	---------------------------------------

## 1-(1) 동짓달 기나긴 밤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 「저녁에」

### 가락고등학교 (서울)

####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3·4(4·4)조의 음수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는 4음보로 된 정형시이나, (나)는 음보가 일정하지 않은 자유시이다.
- ③ (가)의 '구뵈구뵈 퍼리라'와 (나)의 '다시 만나랴'에서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 ④ (가)는 각 장이 2구씩, 총 6구로 된 평시조이며, (나)는 3연으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 ⑤ (가)와 (나)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가락고등학교 (서울)

#### 2.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 ②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 ④ 자연물 '춘풍'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원망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통해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드러낸다.

### 가락고등학교 (서울)

#### 3. 화자의 정서가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晝夜)에 흐르거든 옛 물이 \*있을손가  
 인걸(人傑)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 것은  
 \*있을손가 : 있겠는가?
- ② 청산(靑山)은 내 뜻이요 녹수(綠水)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에어 가는고  
 \*변할손가 : 변하겠는가?  
 \*에어 : 흘러
- ③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허랴  
 말슴도 \*우음도 아녀고 몬내 도하 흐노라  
 \*우음 : 웃음
- ④ 한겨울에 베풀 입고 바위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도 썩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 졌다는 소식에 눈물 나는구나
- 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난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를 설워하나이다.

### 가락고등학교 (서울)

#### 4. (가)와 (나)에서 대조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찾아 연결한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밤 - 허리
- ② 서리서리 - 구뵈구뵈
- ③ 동지(冬至)스들 - 춘풍(春風)
- ④ 기나긴 밤 - 님 오신 날 밤
- ⑤ 밝음 속에 - 어둠 속에

## 1-(1) 동짓돌 기나긴 밤을

### 가락고등학교 (서울)

5. (가)에서 <보기>의 ㉓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한 개의 단어로 쓰시오.

<보기>

( ㉓ )은/는 순우리말로 된 음성상징어로,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 할 뿐 아니라 동그랗게 마는 모양을 시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게 구체화하여 표현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 가락고등학교 (서울)

6. ㉑~㉔을 현대어로 고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동방고등학교 (대전)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각 행을 네 박자의 호흡에 맞추어 읽는다.
- ② (가)는 정형적인 운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나)는 대비와 대구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단어가 함축적이고 화자의 정서를 압축하여 보여 준다.

### 동방고등학교 (대전)

8. (가)는 어떠한 발상으로 주제를 형상화했는지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나긴) ①밤을	㉒버혀 내어	→ (이불 속에) 넣었다가	→ 퍼리랴

- 발상의 특징
- ③ 비물질적인 대상을 물질처럼 표현함
- 발상의 효과
- ④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 냄
- ⑤ 입에 대한 원망과 이별의 애절함을 강조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랴.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동인고등학교 (부산)

9. (가)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형상화하였다.
- ② 동일한 형태소가 반복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 ④ 비슷한 길이의 유사한 표현을 나란히 배치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⑤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냄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 동인고등학교 (부산)

10. (가)에 나타난 의미의 대립 관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의 존재 여부
- ② 계절의 춥고 따뜻함
- ③ 상황에 따른 상반되는 입장
- ④ 시적 자아와 임
- ⑤ 시간의 길고 짧음

## 1-(2) 봄봄

### ◆핵심 정리◆

<b>갈래</b>	단편 소설, 농촌 소설, 현대 소설
<b>성격</b>	, 해학적
<b>시점</b>	1인칭 주인공 시점
<b>배경</b>	• 시간적 배경 -1930년대(일제 강점기) • 공간적 배경 -강원도 농촌
<b>제재</b>	성례(혼인) 문제
<b>주제</b>	교활한 장인과 어수룩한 데릴사위 사이의 해학 적 갈등
<b>특징</b>	• 과거와 현재의 순서가 뒤바뀐 역순행적(역전 적) 구성을 보임. • 토속어, 방언,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느낌과 더불어 현장감을 줌. • 상황을 과장되게 설정하여 웃음을 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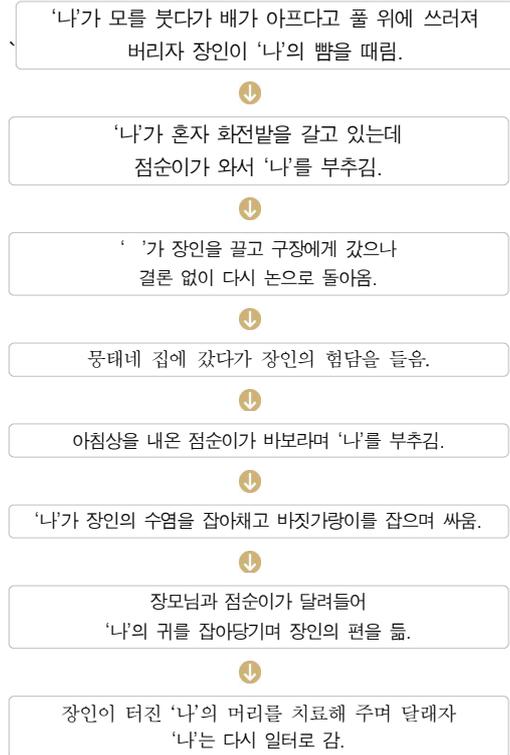
### • 구성(          구성: 절정 ①    결말 → 절정 ②)

해당 부분	중심 내용
발단	성례(결혼) 문제를 둘러싼 '나'와 장인 간의 갈등
전개	'나'와 장인 간 갈등의 심화
절정 ①	점순이의 총동질로 장인과 해학적인 활극 을 벌이는 '나'
결말	싸움이 끝나고 '나'와 장인 간에 화해가 이 루어짐.('절정' 단계에 삽입됨.)
절정 ②	'나'는 장인을 편드는 점순의 태도에 열이 빠짐.

### • 등장인물

<b>'나'</b>	점순과 혼인을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약속을 믿 고 대가 없이 일을 해 주고 있는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
<b>장인</b>	혼인을 미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위선적이고) 교활한 인물로, 미름의 지위에 있으나 전반적으 로 품위와 교양이 없음.
<b>점순</b>	혼인이 하고 싶어 '나'를 부추겨 아버지와 맞서 게 하나, 정작 싸움이 벌어지자 아버지(장인) 편 을 들어 '나'를 당황시킴.

###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



### • '절정~결말' 단계의 사건 전개



• 제목의 의미

<b>봄·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절적 배경</li> <li>'봄'이라는 계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남녀의 청춘을 상징함.</li> <li>'봄'의 반복됨을 고려할 때: '봄'의 순환 봄마다 반복되는 '나'와 장인의 갈등, 헤어날</li> </ul>
------------	---

• 갈등의 양상과 그 원인

<b>'나'</b>	<b>장인</b>
점순이와 성례를 울리고 자 함.	'나'의 성례를 미루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면적 이유: 점순이의 작은 키</li> <li>근본적 이유: '나'를 더 부러 먹으려는</li> </ul>

• 해학적 요소

요소	예시
토속어, 방언, 비속어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속어, 방언: 짜증(짜장), 안죽(아직), 불배기(불박이), 승겁다(싱겁다), 움물길(우물길), 가생이(가장자리), 우짚근하다, 씨러지다, 쟁그럽다(고소하다) 등</li> <li>비속어: 자식, 대가리, 썩년, 꼴(형편이나 처지), '나'(창자) 등</li> </ul>
뺨(뺨창)의 어수룩한 말과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 7개월간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곧 점순이와 성례를 울릴 것이라고 믿음.</li> <li>장인과 싸운 후에 장인이 잘해 주자 눈물까지 흘리며 다시 일하려 감.</li> </ul>
'나'와 장인 간의 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가 점순이가 말한 대로 장인의 수염을 잡아챈.</li> <li>장인이 '나'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매달리다가 잠시 후 '나'가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매달림.</li> </ul>
과장된 상황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가 점순이의 데릴사위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세 번째 인물임.</li> <li>'나'가 별다른 불평 없이 3년 7개월간 대가 없는 노동을 함.</li> </ul>
인물의 희화화된 외모와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순이는 '불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매를 지님.</li> <li>'나'가 보기에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애를 낳음.</li> </ul>
남녀 역할의 전도	'나'(남)는 성례에 대해 주변 인물들에게 말기는 등 소극적인 데 반해, 점순이(여)는 성례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를 총동질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눈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드니 잡은 참 내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 “이 자식아, 일 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속셈이냐? 이 대 가릴 까놀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고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 놓고 ‘욕필이(번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음의 배 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갈래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톱 됐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푹푹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든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려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영금영금 기어돌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실굶실하는 게 아닌가…….

(나)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르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발 반도 걸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든 것이다. <중략>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두 아니고, 꼭 내 안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울에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현칠이들 크건만 이걸 우아래가 몽푹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젤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등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훅훅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장인님은 이걸 채시니없이 들까본다고 하지만) 너머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하면 오적오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

래는지 혹은 제 소린지

㉢ “밤낮 일만 하다 말 텨가!”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루 눈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구 꺾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뒀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구 아래와 같이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몽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 마지기 얻어 부치니까 그래 꺾였다구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자네 말두 하기가 옳지. 암, 나이 찼으니가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허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거든!(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났다. 제 산에 불을 놓아두 징역을 가는 이뻐데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네 정장을(사경 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팬시리 질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두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 나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네 물론 아들이 늦일 걸 염려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인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 일을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모 뵈든 거나 마저 뵈게. 군소리 말구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꺾소리 없이 왔다.

(라)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몽태네 집에 마술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구두 그걸 가만뒀?”

“그럼 어떻게?”

“임마, 봉필일 모판에다 거꾸루 박아 놓지 뭘 어떡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 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잔까지 쳤다. 놈이 본시 팔팔은 하지만 그래 놓고 날더러 석웃값을 몰라구 막 찌다우를 붙는다. 난 어안이 병병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 지꺼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 주구 있을 테냐?”

“영득이는 일 년을 살구두 장갈 들었는데 넌 사 년이나 살 구두 더 살아야 해?”

“네가 세 번째 사원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두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구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루 후닥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마)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옛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쫓알거린다. 탄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떻게단!”

하니까,

㊟“침을 잡아채지 그냥 뉘,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샅죽하니 튀 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에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여웁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든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팬찮지만 내 안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갈라 하다 도루 벗어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우에 들어누어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바) 아픈 것을 눈을 꼭 감고 넌 해라 난 재미난 듯이 있었으나, 불기짜를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별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내 곱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벽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곱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톱톡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매가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정 바보로 알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농의 장인님 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펍 기뻐했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라부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졌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엔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펍 나서 그 아래 발 있는 녀 알로 그대로 떼밀어 굴려 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덧 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부러만 먹구 왜 성례 안 하지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허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넬이라 두 성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는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드니 내 바지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담박 웅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팡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아! 할아버지! 살려 줘쇼,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 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 그래두 장인님은 놓질 않드니 내가 기어히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쪼쪼했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눈에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랭이를 꼭 움키고 잡아나꼈다.

(사) 이렇게 맹서를 하며 불라살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렸다.

“아! 아! 이놈야! 놈라, 놈,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찬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농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 주리라 생각하고 짓곳이 더 멍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놈라, 놈, 놈, 놈, 놈…….”

그래도 안 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약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댕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었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 김유정, 「봄·봄」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② 역순행적 구성으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외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특정 인물의 시각과 입장에서 서술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⑤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장인은 비록 욕은 잘하지만 마음으로서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 ② '나'는 점순이의 키와 얼굴 생김새에 무척 불만이 많다.
- ③ 구장은 '나'를 잘 설득해서 장인 집에서 다시 일하게 만들었다.
- ④ '나'는 어젯밤 몽태네 집에 간 것을 후회하면서 몽태와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 ⑤ 점순이는 '나'와 장인이 싸우고 있을 때 결국 내 편을 들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3.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나'가 피병을 부린다고 생각해서 심하게 욕을 하고 있군.
- ② ㉡ : '나'는 장인에 대한 불만과 점순이의 키 때문에 소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군.
- ③ ㉢ : 점순이가 '나'와 하루 빨리 혼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군.
- ④ ㉣ : 구장에게 '나'가 항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점순이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 : 점순이가 자신을 바보로 보지 않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힘을 과시하고 있군.

**가락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와 ㉢에 들어갈 말을 3음절로 쓰시오.

<보기>

이 작품은 소설가 김유정의 문체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는 어리숙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거나 익살스러운 표현, 과장되고 희극적인 상황의 연출을 통해 ( ㉠ )을/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배경으로 하여 그 지방의 언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 ㉢ )도 살리고 있다. ( ㉠ )와/과 ( ㉢ )는 '동백꽃'과 같은 김유정의 다른 소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그의 문체라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꺾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즈막 작인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 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쫘 뚜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머처럼 닦어 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빚서 점순이에게 열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몽태네 집에 마술 간 것이 썩 나뻘었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구두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떻게거니?”

“임마, 봉필일 모판에다 거꾸루 박아 놓지 뭘 어떡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 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잔까지 찼다. 놈이 본시 괘괄은 하지만 그래 놓고 날더러 석웃값을 몰라구 막 ㉠짜다우를 붙는다. 난 어안이 병병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 지꺼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 주구 있을 테냐?”

“영득이는 일 년을 살구두 장갈 들었는데 넌 사 년이나 살구두 더 살아야 해?”

“네가 세 번째 사원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두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구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루 후닥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데릴사위를 해 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열 살 때부터 열아홉 즉 십 년 동안에 데릴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마는 열네 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담 딸을 데릴사위를 해 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누라고 연방 바꿔 들였다. 또 한편 놈들이 육만 줄창 퍼붓고 심히도 부려 먹으니까 벨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데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여섯 살, 적어도 열 살은 돼야 데릴사위를 할 테므로 그 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채리고 장가를 들어 달라구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 난 몰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눈독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껴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랏파랏 돌아 오른 풀 한 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이 이상한 눈을 해 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우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드니 잡은 참 내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일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속셈이나? ㉡이 대가릴 까놀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다)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아! 할아버지! 살려 줘쇼,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뿜고 인젠 참으로 죽나 부다 했다. 그레두 장인님은 놓질 않드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끄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찢찢했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눈에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영금영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팍 웅기고 잡아나췘다.

(라)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숨으로 손수 지져 주고, 호주머니에 ㉢히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

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서를 하며 불라살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마)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췘다.

“아! 아! 이놈아! 놈아, 놈,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채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 주리라 생각하고 짓곳이 더 땡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놈아, 놈, 놈, 놈, 놈…….”

그래도 안 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 김유정, '봄·봄'

**동방고등학교 (대전)**

**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나'를 풍자함으로써 투철한 현실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라)를 (마)보다 먼저 배열하여 희극적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해학성을 살리고 있다.
- ④ 언어, 인물, 성격, 내용 등에서 도시적인 것과 토속적인 것이 이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⑤ 장인에 대해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장인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6.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 속 서술자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타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작품 밖 서술자가 전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작품 속 한 인물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 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복수의 서술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다층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1-(3) 이옥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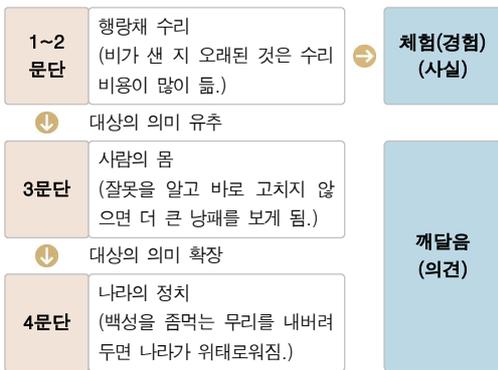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설(設), 고전 수필
성격	교훈적, 유추적, 경험적
제재	행량채를 수리한 일
주제	잘못을 빨리 알아 고쳐 나가는 자세의 필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깨달음의 구조로 구성됨.</li> <li>•유추적 발상이 적용되어 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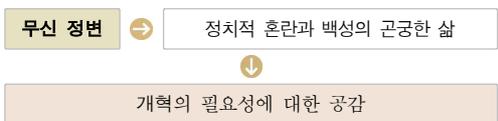
### • 구성

1문단	행량채 세 칸을 수리함.
2문단	제때 고치지 않은 행량채를 수리하는 데 비용(경비)이 많이 들.
3문단	사람(의 몸)도 잘못을 알고 오래 고치지 않으면 다시 쓰이기 어려움.
4문단	나라의 정치도 문제를 발견하고 개혁을 늦추면 바로잡기 어려우니 조심해야 함.

### • 내용 전개 과정



### • 작품의 배경



### •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

비가 샌는 상황	무신의 난과 몽고 침입으로 혼란스러운 당시 상황
집	고려 왕조
재목들	나라의 정치
비용(경비)	백성들의 부담, 고통

### • 유추한 대상들의 의미 관계

비교 대상	말하고자 하는 대상	
집	사람의 몸	나라의 정치
재목(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	성품, 습관, 건강 등	나라의 질서와 법규, 인재 등
수리 비용	시간, 노력	시간, 노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③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 가락고등학교 (서울)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한문 수필이다.
- ② 대조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생각의 대상을 점차 좁혀가며 구체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
- ④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슷한 다른 것에 유추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와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 가락고등학교 (서울)

2. 뒷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잘못은 가능하면 발견한 즉시 바로 고쳐야 한다.
- ②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매사에 행동을 조심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잘못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 가락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할 때, 뒷글에 쓰인 소재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 ① 집 - 고려 왕조
- ② 재목 - 정치를 하는 사람
- ③ 경비 -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
- ④ 비가 새는 상황 - 혼란스러운 당시의 정치 상황
- ⑤ 우선 집을 수리하는 일 - 무인정권을 배척하는 일

### 가락고등학교 (서울)

4. ③과 같은 상황에 쓸 수 있는 속담을 모두 고른 것은?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사후 약방문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 동방고등학교 (대전)

#### 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추리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 ②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혼란한 사회를 비판한다.
- ③ 타인의 견해를 인용한 뒤 그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다.
- ④ 사물의 주관적 외양 묘사를 통해 계은 자에 대해 경계한다.
- ⑤ 사회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 동방고등학교 (대전)

#### 6.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 ① ㉠은 고려 왕조를 말한다
- ② ㉡은 혼란스러운 정치를 말한다.
- ③ ㉢은 나라의 백성을 말한다.
- ④ ㉣은 나라의 인재를 말한다.
- ⑤ ㉤은 백성들의 고통을 말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 배턴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그러나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서는 한 멤버가 된다는 것만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말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無音)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스볼 팀의 외야수(外野手)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스케르초(Scherzo)'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는 든한 콘트라베이스를 짙짙하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연주자를 부러워한다.

## 1-(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핵심 정리◆

<b>갈래</b>	
<b>배경</b>	현대의 우리 사회
<b>제재</b>	말기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인희(엄마)의 삶
<b>주제</b>	죽음의 과정을 통해 본 가족의 진정한 의미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과 대사를 중심으로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냄.</li> <li>•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로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가족의 슬픔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음.</li> <li>• 파편화된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 가는 모습을 그림.</li> </ul>

### • 구성

<b>S#39~S#44</b>	검사를 통해 인희가 말기 자궁암에 걸린 사실을 확인함.
<b>S#142~S#146</b>	인희가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된 가족들
<b>S#163~S#169</b>	새로 지은 전원주택에서 정철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숨을 거두는 인희

### • 주요 인물 소개

	50대 초반의 가정주부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가족들 품에서 죽음을 맞이함.
<b>정철</b>	월급 의사로 일에 치여 가정에 무심하게 살다가 아내의 병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됨.
<b>연수</b>	자신만을 생각하는 성격이지만 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후 아버지를 챙기고 동생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임.
<b>정수</b>	삼수생. 어려서 사고로 귀를 다쳐 보청기를 끼고 다니고, 어리광을 부리며 살다가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함.
<b>할머니</b>	평소 며느리를 구박하며 살다가 치매에 걸려 며느리의 보살핌을 받음. 며느리와의 끈끈한 정이 있어 제정신이 돌아올 때면 며느리의 상황을 안타까워함.

### • 형상화 방법

<b>인물의 행동과 대사</b>	인물 간의 갈등과 인물의 심리를 드러냄.
<b>몽타주 기법</b>	인물 사이의 대사 없이 행동만 연속적으로 나열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50대의 가정주부인 인희, 남편 정철은 의료 사고로 개인 병원을 정리한 뒤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종종 치매 환자이다. 다 큰 자식들도 언제나 위태 위태하기만 하다. 평생 온 가족의 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면서도 전원주택을 꿈꾸며 바쁘게 살아온 그녀, 오줌소태가 심해져 어느 날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들르는데…….

S# 42. 대학 병원, 판독실 / 낮

장 박사, 여러 모니터를 살펴하며 정철의 안색을 살피고는.

장 박사 : (차트 판을 끄며) 이미 늦었어.

정철 : (붉게 충혈돼서는 버럭, 일어나고) 그게 의사가 할 소리야, 임마? 사람 목숨 놓고, 가라. 그럼 끝나. 이 자식야?

장 박사 : (화가 나서) 수술, 하등 도움이 안 돼. 임파선이 통통 붓고, 여기저기 엉망이야. 잘못하면, 더 크게 번져. 괜히 해집어서 병만 키운다고.

정철 : 수술해!

장 박사 : 안 돼.

정철 : (눈물 가득해) 너 왜 그렇게 말이 쉬워? 남편이 의사란 작자인데 손 하나 까닥 않고, 저 하나만 보고 산 여자한테. 한마디로 너 끝장났어. 여편네야, 그렇게 말하랴? 난 못 해. 배 열구 직접 보기 전에 그 말 못해. 진행이 예상보다 못 할 수도 있어. 아직은 그 여자도 안 아프대.

장 박사 : 아퍼, 참는 것뿐이야. 분명 아퍼. 그리고 수술하면 인희 씨가 더 힘들어.

정철, 안 되겠다 싶은지, 차트 판의 불을 켜고 여기저기 걸으며.

정철 : (종양 가리키며) 그래, 나두 의사야. 이게, 이렇게 크게 아래를 누르고 있어. 소변볼 때마다 죽을 맛일 테구.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할 거야. 자각은 죽는다는 통보니까, 곧 죽겠지. (울지 않으려 이를 악다물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젠 때 낼 수 있어. 숨통이나 틈우자구! 단 1주일만이라도 더…… 그것만이라두…… 해 주자구!

[중략 부분 줄거리] 검사 결과 인희는 자궁암 말기로 판명되고, 수술도 실패한다. 예고된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편 자신이 죽은 후의 식구들을 걱정하는 인희.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이다. 자식들에게는 끝까지 병을 숨기려고 했으나 결국 막내까지 알게 된다.

S# 142. 인희의 집, 할머니 방 / 밤

<중략>

정수, 가족들 번갈아 보면서 멍해지다가, 펄쩍 뛰고 묻는다. 정철은 창 쪽으로 시선 외면하고 있다.

정수 :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아파? 엄마가 왜 죽어? (돌아보고) 아빠? (대답 없자, 연수 보고) 누나! (연수, 외면한다.) 야! 말해! 뭐야, 내가 모르는 게 뭐야!

연수 : …….

정수 : 넌 언제부터 안 거야! 언제부터 안 거냐구! 나만……. 모른 거야?

인희 : 정수야.

정수 : (발악하며) 그런 거야?

연수 : (허리 다잡으며) 이러지 마.

정수 : (연수를 밀치지만 안 되는) 놈! (정철에게) 아빠!

정철 : (외면하는)

정수 : 아빠 의사잖아. 근데 왜 엄마가 아파!

연수 : 이러지 마, 정수야.

정수 : 놈! 놓으라고!

연수 : (안고 울며) 더 이상 엄마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

정수 : (주저앉아 울며) 왜, 왜 울 엄마가 죽어야 된대? 왜! (인희에게 매달리며) 난 못 보내! 엄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응?

연수와 정철, 정수를 인희에게서 떼어 내면, 인희, 아까부터 끽끔 목울음을 울다가 기어이 터진다.

인희 : (정수 안고 우는) 아이고, 우리 정수…….

인희, 못 참겠는지, 방을 뛰쳐나가 벽에 주저앉으며 속 얘기를 터뜨린다.

인희 : 나도……. 나도, 살고 싶어. 죽으면 천국, 지옥 있다는 데, 지옥 같까 봐 무섭구.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하는지 너무 무서워. 죽을 때도 많이 아플까? 정수 대학 들어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어. 아니, 연수 결혼하는 것만 보고, 아니, 정수 애 낳는 것만 보고, 내 새끼도 이렇게 이쁜데 손주들은 얼마나 이쁠까. 나 별 반나 봐. 너무 힘들 땐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라나. 생각했었는데, 우리 정수 처음 사고 났을 때, 보청기 끼고라도 들을 수만 있으면, 내 통장 전부 다 내놓겠다고, 평생 봉사하고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못 지켰고, 그래서 나 별 반나 봐…….

저마다 선 자리에서, 저마다 작게, 크게 우는 가족. 암전.

S# 146. 인희의 집, 화장실 / 아침

## 1-(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인희, 할머니에게 새 속옷, 내복을 갈아입혀 주고 있다.

인희 : (맘 아픈 걸 참고) 좋아?

할머니 : …….

인희 : (쪼그려 앉으며) 개운하지?

할머니 : (인희 눈을 보고 있다. 정신이 들어왔는지 인희 맘을 알 것 같다.)

인희 : (눈물 참고, 대견해하며)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애. 그 유명한 남대문 여장부……. 시아버님, 다 늙어, 겨우 북에 둔 정인 있고, 어머니한테 정 붙이나 했더니, 중풍으로 누워 고생만 시키다 훌쩍 떠나시고, 평생 외로움에, 우리 서로 잘 통했는데……. (손을 잡고, 차마 못 보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다시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엄마, 먼저 두시고 애들 애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할 때, 애들두 없고, 외롭구 그럴 때도……. 어머니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밉다고 해도, 가끔 당신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곤 하셨는데…….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두 안 나지? <중략>

[중략 부분 줄거리] 인희의 병세가 점점 나빠지는 동안 전원주택이 완성되고, 정철과 연수는 인희를 위해 집을 예쁘게 단장한다. 그리고 두 사람만이 보내는 새집에서의 첫날.

S# 166. 전원주택, 거실 / 밤

정철, 땀을 뻘뻘 흘리며 비디오 케이블 잭과 단자에 이리저리 꽃아 본다.

인희 : (보다 못해) 나중에 정수 오면 시켜요.

정철 : 다 됐어.

드디어 화면이 나온다.

우쭈룩하게 인희를 보고 열린 미소를 짓는 정철.

하지만 화면만 나오고 오디오는 나오지 않는다.

이마에 땀을 닦는 정철, 인희 눈치를 보며 리모컨으로 세팅을 바꿔 보지만 여전히 화면만.

인희 : 괜찮아, 자막 있잖아. (들으라는 듯) 당신 바빠서. 나 혼자 몇 번을 봤게.

대꾸 없이 나가는 정철, 기타를 들고 온다.

인희 : (소녀 같은 웃음) 정철 씨 멋지네.

연주할 품을 잡는 정철. 어색하다가 제법 품이 잡힌다.

마침 화면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자, 립싱크를 맞춘다.

인희 : 얼마 만이야. 당신 노래…….

정철 : 이제 매일 불러 줄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불안한 음색으로 시작하지만 이내 자리잡는 정철의 노래.

하지만 힘이 드는지 어느새 잠이 들어 버리는 인희. 노래는 계속 흐르고.

S# 167. 전원주택, 침실 / 밤

인희, 침대에 수줍게 누워 있고, 정철 속옷 차림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온다.

인희 : 여보, 나 소원 있어.

정철 : 뭐?

인희 : 나 무덤 만들어 줘.

정철 : 언젠 답답해서 싫다구 확장해 달라며?

인희 :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루더라. 남한강에 뿌렸는데, 하두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에 없구,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구 애들은 그러지 말라구.

정철 : …….

인희 : 이 집 위에 있는 소나무 아래 뺨가루만 한 줌 뿌려 놔 줘.

정철 : …….

인희 : 당신. 나 없이도 괜찮지?

정철 : (보면)

인희 :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 (고개 저으며) 싫어.

인희 : 나…… 보고 싶을 거는 같애?

정철 : (끄덕인다.)

인희 : 언제? 어느 때?

정철 : ……다.

인희 : 다 언제?

정철 :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인희 : (안타까운 맘, 보며) …….

정철 : (고개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 또?

정철 :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 1-(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인희 : 또?

[A]  
정철 :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  
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  
집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인희 :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  
물이 주룩 흐르고)

정철 : (인희를 안고, 눈물 흘리고)

인희 :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  
라.

정철, 입을 맞춰 주고, 두 사람. 다시 안고 울고.

정철 : 너 정말..... 고맙다.....

S# 169. 전원주택, 침실 / 아침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인희, 정철의 팔에 안겨 편안히 잠들어 있다.

인희 : ..... 여보.....

정철 : (아내의 죽음을 느낀다. 보지 않고) 여보.....

인희 : .....

정철 : 인희야.....

그러나 인희는 대답 없고...... 참지 못하고 부서져라 꺼안  
는 정철.

정철, 이를 앙다물고 우는데, 눈물 푹 떨어져 인희의 뺨 위  
로 흐른다.

너무나도 깊이 잠든 인희의 눈에도 차디찬 물기가 서려 있  
다. 페이드아웃.

- 노희경 원작·민규동 각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한다.
- ②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시·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적다.
- ④ 제작 시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 ⑤ 스크린을 통해 관객과 직접적으로 교류한다.

### 가락고등학교 (서울)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② 극의 흐름이 반전됨으로써 인물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 ③ 대사보다 인물의 행동과 상황 묘사 위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장면과 장면의 연결이 사건이 발생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가락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감독이 주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 42에서 정철은 그의 말 속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 안타  
까움, 절박함이 잘 드러나도록 해 주세요.
- ② S# 142에서 정수는 가족들 때문에 엄마가 죽을병에 걸렸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족을 원망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해 주세요.
- ③ S# 146에서 인희는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이 행  
동과 말, 표정에 모두 드러나도록 신경 써 주세요.
- ④ S# 166에서 인희는 무심했던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애쓰  
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목소리와 표  
정에 잘 드러나도록 해 주세요.
- ⑤ S# 167에서 정철은 애써 눈물을 참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  
게 되는데, 정철의 표정에 슬픔이 잘 묻어나도록 눈물 연기  
에 신경 써 주세요.

### 가락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이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묻는 엄마도, 대답하는 아버지도 점차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를 보지 않은 채 마음속에 빗장처럼 걸  
려 있던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뱉어냈다.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집이 부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엄마는 물기를 가득 머금  
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엄마도 차마 아버지의 얼굴  
을 마주 보지 못할 만큼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있었다.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기어어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에서

- ① [A]와 <보기>는 모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 ② [A]와 달리 <보기>는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보기>는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④ <보기>의 인물 간 대화를 [A]에서 거의 살리고 있다.
- ⑤ <보기>와 달리 [A]는 인물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지시하고 있다.

### 가락고등학교 (서울)

5. <보기>의 ㉠(나)에 사용한 시나리오 기법 이름을 쓰고,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 (가)와 비교할 때, ㉡(나)에서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쓰시오.

<보기>

(가)

S# 43. 병원 앞, 버스 정류장 앞 / 낮

정철 : (반대쪽 팔을 이끌며) 집에 가.

인희 : (뿌리치며) 진즉에 좀 걱정하지, 젊어서 애 날 때두 옆에 없던 사람이, 병원 가요. 일두 안 하구 월급 받을 거야? (정류장 쪽으로 가고)

정철 : (한숨 쉬고 따라가, 다시 팔을 잡고, 택시를 세우려고 한다.)

인희 : (뿌리치고) 버스 놔두고 무슨 택시? 돈이 썩어 나? 죽을병도 아닌데..... 내가 걱정되면, 근덕이한테나 한번 가 보든가.

(나)

S# 163. 전원주택, 몽타주 / 저녁 - 아침 - 낮 - 밤

1. 인희, 평상복 차림으로 더욱 아픈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정철이 상 차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밥 하다 말고, 우스꽝스러운 엉덩이춤을 추며 인희를 배꼽 잡게 하는 정철.

2. 잠시 후 정철, 인희에게 죽을 떠먹여 주고, 인희, 힘겹게 받아먹고.

3. 무릎 베고 누운 인희에게 앨범을 보여 주며 수다 떠는 정철. 인희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고.

4. 정원에서 버섯을 주워 들고 신기하다는 듯 행복한 얼굴을 한 인희와 정철.

5. 인희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위태위태 집 둘레를 도는 정철.

6. 강가를 거닐다 춥다고 어지러워하는 인희. 서둘러 인희를 챙기는 정철.

7. 오한에 떨며 잠든 인희 너머로, 울타리와 나무들에 전구를 장식하는 정철.

### 면목고등학교 (서울)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S# 168. 인희의 집 + 전원주택 / 새벽

연수, 정수, 선애는 잠들어 있고, 할머니는 여전히 숨바꼭질 중.

할머니 : (흥얼거리며)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인희가 어디 있나 여기저기 찾다가, 문득 인희 방을 열면, 그곳은 전원주택의 온실이다. 놀란 할머니 앞으로 집에서 가져온 꽃 무더기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는 인희의 뒷모습이 보인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할머니, 서서히 다가서더니, 문득, 상처 난 데에 입김을 불어 주는 듯, 호오오오 해 준다.

순간, 백만 송이 꽃가루가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온실 너머 새벽안개 속으로 피어오른다.

정철 : (OFF) 여보.....

S# 169. 전원주택, 침실 / 아침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인희, 정철의 팔에 안겨 편안히 잠들어 있다.

인희 : ..... 여보.....

정철 : (아내의 죽음을 느낀다. 보지 않고)

인희 : .....

정철 : 인희야.....

그러나 인희는 대답 없고...... 참지 못하고 부서져라 꺼안는 정철.

정철, 이를 양다물고 우는데, 눈물 뚝 떨어져 인희의 뺨 위로 흐른다. 너무나도 깊이 잠든 인희의 눈에도 차디찬 물기가 서려 있다. 페이드아웃.

- ① S# 168에서 인희의 방을 어둡게 표현하여 죽음의 비극성을 강조해야겠어.
- ② S# 168에서 할머니 역을 맡은 배우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보이도록 연기해야겠어.
- ③ S# 168에서 정철이 아내를 염려하는 마음이 나타나도록 정철의 표정을 강조해서 찍어야겠어.
- ④ S# 169에서 죽음을 뛰어넘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점차 화면이 밝아지면서 영화를 끝맺음하겠어.
- ⑤ S# 169에서 인희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정철의 모습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고뇌에 대해 표현하겠어.

## <<전체 정답>>

### 1-(1) 동짓돌 기나긴 밤을

1.㉔ 2.㉑ 3.㉒ 4.㉑ 5.서리서리 6.㉑베어 내어 ㉑이불 아래 ㉑사랑하는 사람 7.㉑ 8.㉑ 9.㉑ 10.㉑ 11.㉑ 12. ㉑ 13.㉑ 14.㉑ 15.㉑ 16.㉑ 17.㉑ 18.㉑㉒ 19.㉑ 20. ㉑ 21.㉑ 22.㉑ 23.㉑ 24.㉑ 25.㉑ 26.㉑ 27.㉑ 28.㉑ 29.㉑ 30.㉑ 31.㉑㉒ 32.㉑ 33.㉑ 34.㉑ 35'핵심 시어' 를 살리면서 '시조의 기본 형식'으로 바꾸고자 함.

### 1-(2) 봄봄

1.㉑ 2.㉑ 3.㉑ 4.㉑해학성, ㉑향토성 5.㉑ 6.㉑ 7.㉑ 8. ㉑ 9.㉑ 10.㉑ 11.㉑ 12.㉑ 13.㉑ 14.㉑ 15.㉑ 16.㉑ 17.㉑ 18.㉑ 19.㉑ 20.㉑ 21.㉑ 22.㉑ 23.㉑ 24.(1)㉑- ㉑-㉑-㉑-㉑-㉑-㉑-㉑-㉑ (2)'나'와 장인의 우스꽝스런 싸움을 극대화시켜 작품의 긴장감을 살리고 해학성을 부각한다. 독자가 앞뒤 사건의 관계를 추측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사전 예상이나 사후 확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㉑ 26.㉑ 27.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적수준이 떨어진다. 28.㉑ 29.㉑ 30. ㉑ 31.㉑ 32.㉑ 33.㉑ 34.㉑ 35.㉑ 36.㉑ 37.㉑ 38.㉑ 39.㉑ 40.㉑ 41.㉑ 42.㉑ 43.(1)윗글은 역순행적 구성이고, <보기>는 순행적 구성이다. / 윗글은 대화와 행동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냈고, <보기>는 사건의 배경과 결말을 요약적으로 보여주었다. (2)바다 44.㉑ 45.㉑ 46.㉑ 47.㉑

### 1-(3) 이옥설

1.㉑ 2.㉑ 3.㉑ 4.㉑ 5.㉑ 6.㉑ 7.㉑ 8.㉑ 9.㉑ 10.㉑ 11.(1)비가 새어 집이 퇴락해가는 상황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비유한다. (2)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인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고치는데 비용이 더욱 많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나라에 위기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뒤늦게 고치려 든다면 나라의 인재는 이미 잃은 후이고,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도 더욱 커질 것이다. 12. ㉑ 13.㉑ 14. 잘못이 있다면 그 즉시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15. ㉑ 16.㉑ 17.㉑ 18.㉑ 19.㉑ 20.㉑ 21.㉑ 22.㉑ 23.㉑ 24.㉑ 25.㉑ 26.㉑ 27.㉑ 28.㉑ 29.㉑ 30.㉑ 31.㉑ 32.

㉑ 33.㉑ 34.㉑ 35.㉑㉒ 36.지은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는 것이다. 37.㉑ 38.㉑ 39.㉑

### 1-(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㉑ 2.㉑ 3.㉑ 4.㉑ 5.㉑ 몽타주 기법 ㉑ 대사 없이 행동만 연속적으로 나열해서 보여준다. 6.㉑ 7.㉑ 8. ㉑ 9.㉑ 10.㉑ 11.㉑ 12.㉑ 13.㉑ 14.㉑ 15.㉑ 16.㉑ 17.㉑ 18.㉑ 19.㉑ 20.㉑ 21.㉑ 22.㉑ 23.㉑ 24.㉑ 25. ㉑ 26.㉑㉒ 27.S#165. 전원주택, 몽타주 / 저녁-아침- 낮-밤 28.㉑ 29.㉑ 30.㉑ 31.㉑ 32.㉑ 33.㉑ 34.㉑ 35. ㉑ 36.(1)연극 (2)대사 (3)극 37.㉑ 38.㉑ 39.㉑ 40.㉑ 41.과거 오진을 했던 일 때문에 '실력 없는 의사'라는 자괴감을 느끼며, 의사이면서도 자기 아내의 병을 몰랐던 자신에 대한 자책과 미안함을 드러낸다. 42.㉑ 43.㉑ 44.㉑ 45.㉑ 46.㉑몽타주, 앞으로 누리지 다시 누리지 못할 일상적인 행복과 아픈 인희의 모습을 교차시켜 제시함으로써 예고된 죽음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 2-(1) 한국의 정체성

1.㉑ 2.㉑ 3.㉑ 4.㉑ 5.㉑ 6.㉑ 7.㉑ 8.㉑ 9.㉑ 10.㉑ 11.㉑ 12.㉑ 13.㉑ 14.㉑ 15.㉑ 16.㉑ 17.㉑ 18.㉑ 19. ㉑ 20.사람들이 '개성'이 아니라 '시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21.㉑ 22.㉑ 23.㉑ 24.고유성은 시원이 아니라 개성의 문제임을 알고 우리만의 개성과 독특함을 갖는다면 원조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5.㉑ 26.㉑ 27.㉑ 28.㉑ 29.프랑스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여 포도주를 프랑스의 상징으로 만든 것처럼, 탁 선생은 탁 선생만의 방식으로 족발을 개발하면 된다. 30.㉑ 31.㉑ 32.㉑ 33.㉑ 34.㉑

### 2-(2)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

1.㉑ 2.㉑ 3.㉑ 4.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5. ㉑ 6.㉑ 7.㉑ 8.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9.㉑ 10.㉑ 11.㉑ 12.㉑ 13.㉑ 14.㉑ 15.㉑ 16.㉑ 17.㉑ 18.㉑ 19.㉑ 20.㉑ 21.㉑ 22.㉑ 23.㉑ 24. ㉑ 25.㉑ 26.㉑ 27.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피곤하기 때문에 수업에 열중하기 어렵고 이것이 성적 저하로 이어진다. ㉑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게